
주요국 예산안 - 프랑스

2018. 1.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김우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하에스더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5
3. 예산안 내용	6
가. 세입	6
나. 세출	8
4. 주요 재정정책	11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11
나. 재정건전화	13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6

프랑스

☐ FY2018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출처

- 2018년 예산법안 (PLF 2017: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8)
- 2018년 예산안 관련 부속서류
 - Dossier de presse-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8, chiffres clés du PLF 2018,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등
-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 (PLPFP: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8-2022)
- 2018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LFSS 2018: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2017년 1차 추경예산안 (PLFR1: premie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17)
- 2017년 2차 추경예산안 (PLFR2: deuxième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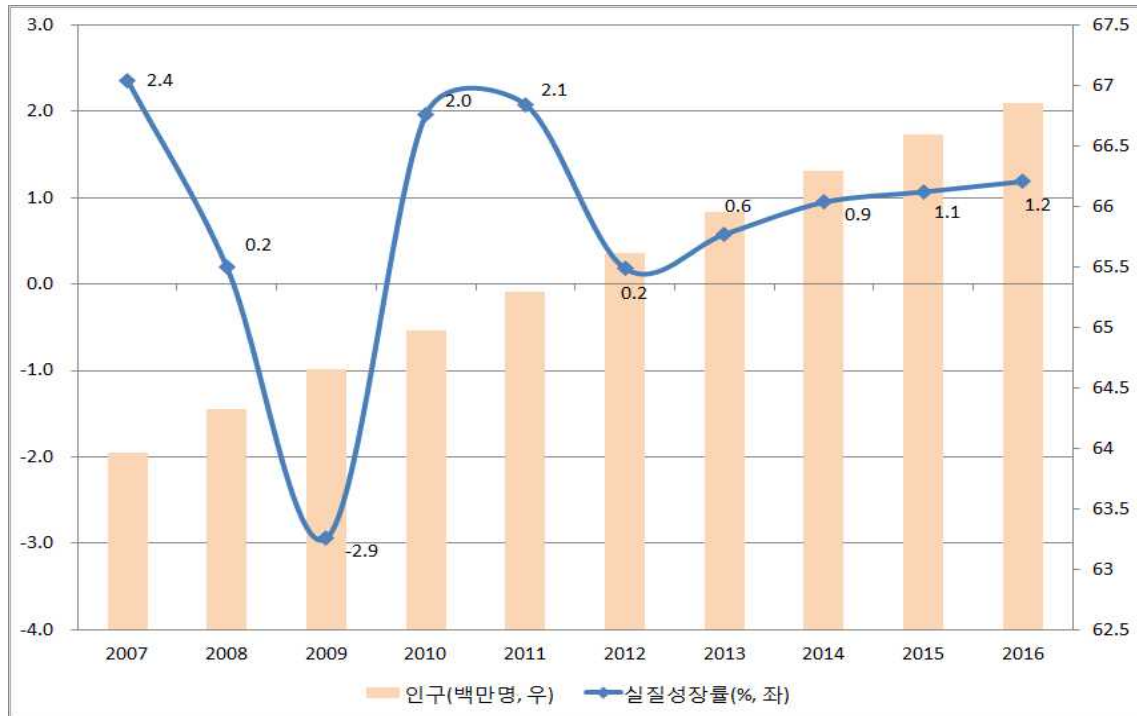
☐ 환율 : 1유로 = 약 1283.3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6년 경상GDP 2조 7,655억달러(우리나라 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 2016년 기준 60.5%(우리나라는 77.7%)

☐ 인구 : 약 6,685만명(2016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세계 수요의 가속화는 프랑스의 경제활동 회복에 기여하여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로 전년(2016년 1.1%)보다 회복될 전망
- (재정전망) 2018년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8.9%정도 증가한 3,863억유로이며,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36.3% 감소한 3,020억유로로 전망

☐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안의 정책우선순위는 학교교육, 국방, 연구 및 고등교육이며, 저소득층의 구매력 강화, 실업 대응, 주거정책 개혁에 주력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8년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49억유로 감소한 3,020억유로이며, 이중 조세수입은 2,888억유로, 세외수입은 132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47억유로 증가한 3,863억유로로,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주요재정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성장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세정책을 마련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위해 주택 보조금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절감 등 야심찬 지출절감 조치가 2018년에 시행될 것임
- (복지지출 관리) 2018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지출통제 노력으로 전년대비 30억유로 이상 감소한 22억유로로 전망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17년 4월 12일	2017-2020 안정화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발표
2017년 6월 23일	FY2016 결산보고서 발표
2017년 9월 27일	FY2018 예산법안(PLF) 및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PLPFP) 발표
2017년 9월 28일	FY2018 사회보장예산법안(PLFSS) 발표
2017년 9월 28일	FY2016 사회보장예산 결산 발표
2017년 11월 7일	FY2017 1~9월 예산집행결과 발표
2017년 11월 2일	FY2017 1차 추경예산안(PLFR1) 발표
2017년 11월 14일	FY2017 1차 추경예산안(PLFR1) 의회 최종 승인
2017년 11월 15일	FY2017 2차 추경예산안(PLFR2) 발표
2017년 12월 4일	FY2018 사회보장예산법안 의회 최종 승인
2017년 12월 21일	FY2018 예산법안(PLF) 및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PLPFP), 2017년 2차 추경예산안(PLFR2) 의회 최종 승인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세계 수요의 가속화는 프랑스의 경제활동 회복에 기여하여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로 전년(2016년 1.1%)보다 회복될 전망
 - (물가) 물가는 2017년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입어 1.0%, 2018년에는 디젤유의 세금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하여 1.1%를 기록할 전망
 - (소비) 2017년 가계소비는 1/4분기 부진한 실적의 영향을 받아 2016년(2.3%)에 비해 현저하게 둔화(1.3%)되지만, 2018년 실질임금의 상승과 정부의 다양한 세금 감면 조치로 가계구매력이 뒷받침되면서 가계소비는 1.4%로 회복될 것임
 - (기업투자) 2017년 기업투자는 4.2%(2016년 3.9%)로 매우 역동적일 것이며 2018년 기업투자(4.1%)는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대내외 수요의 역동성에 견인되어 2017년과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임
 - 2017년 4월 15일 생산적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조치 종료의 영향은 2017년 2/4분기 말에 제한적으로 나타남
 - (무역) 수출은 2017년에 글로벌 수요의 강화 및 관광산업의 정상 복귀로 전년보다 상승(2.5%)하고 2018년에는 최근 유로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수출실적이 3.9%로 가속화될 것임

<표 1>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실질GDP성장률	1.1	1.7	1.7
물가상승률	0.2	1.0	1.1
가계소비	2.3	1.3	1.4
기업투자 ¹⁾	3.9	4.2	4.1
수출	1.8	2.5	3.9
수입	4.2	3.6	3.6

주: 1) 건설투자 제외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47억유로 증가한 3,863억유로로 계획

- GDP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2017년 54.6%에서 2018년 53.9%로 감소하며, 이후에 하락세를 지속하다 2022년 50.9%에 도달하여 2017-2022년 동안 3%p 이상 감축할 계획
- 지출 통제 노력은 2022년까지 중장기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며 2017-2022년 연평균 실질지출증가율은 0.4%로 2010-16년 연평균 증가율 0.8%보다 낮은 수준
- 새로운 지출 목표 기준인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의 증가율을 2018년 0.6%, 2019년 -0.4%, 2020-2022년 -1%로 제한(<참고 1>)

* 조정가능 지출은 일반 예산의 세출,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등 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출을 의미하며 재량지출과 유사

[그림 1] 조정가능 지출증가율의 추이 및 전망



자료: PLF 2018

□ (재정수입) 2018년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49억유로 감소한 3,020억유로이며, 이중 조세수입은 2,888억유로, 세외수입은 132억유로로 전망

- 세금부담을 줄임으로써 가계구매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2017년 44.7%에서 2022년 43.6%로 하락시켜 2017-2022년 동안 GDP대비 1%p 이상 감축할 계획

<표 2> FY2018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6 결산	2017		2018 예산법안
		본예산	수정	
재정지출(Dépense nettes)	376.2	381.6	384.8	386.3
재정수입(Recettes nettes)	300.3	306.9	303.1	302.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84.1	292.3	290.1	288.8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6.2	14.5	13.0	13.2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75.9	-74.7	-81.7	-84.3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6.8	5.4	5.2	1.4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69.1	-69.3	-76.5	-82.9

자료: PLF 2018

<표 3> 2017-2022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대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세부담률	44.7	44.3	43.3	43.6	43.6	43.6
재정지출	54.6	53.9	53.3	52.5	51.8	50.9
명목지출 증가율(%)	1.8	1.5	1.7	1.8	2.0	1.9
실질지출 증가율(%)	0.8	0.5	0.6	0.4	0.2	0.1

자료: PLPFP 2018-2022

2) 재정수지

- GDP대비 재정적자는 2017년 2.9%, 2018년 2.6%로 전망되어 2017년에 EU의 기준인 3%이하를 달성하고 2009년에 시작된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가 종료될 전망

- 구조적 재정적자는 2017년 2.2%, 2018년 2.1%, 2019년 1.8%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2년 0.8%로 재정수지 균형에 근접할 전망

<표 4> 2017-2022년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전망

(단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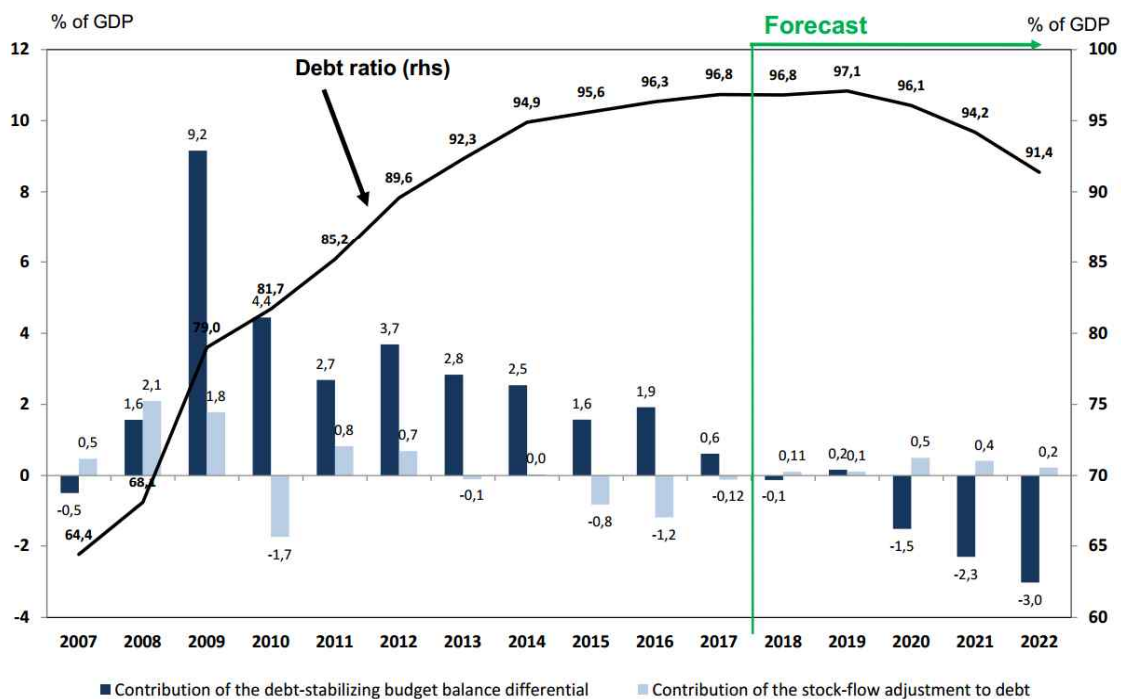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조적 재정수지	-2.2	-2.1	-1.8	-1.6	-1.2	-0.8
재정수지	-2.9	-2.6	-3.0	-1.5	-0.9	-0.2
국가채무	96.8	96.8	97.1	96.1	94.2	91.4

자료: PLPFP 2018-2022

3) 채무비율

- 향후 5년 동안 재정지출의 3%p 이상 감축, 공공계정의 균형으로의 근접, 경제 회복에 의해 국가채무는 2017-18년 96.8%에서 2019년 97.1%를 정점으로 2020년 이후 감소하여 2017년-2022년 동안 약 5%p 감소할 전망
- 2019년 국가채무 증가는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¹⁾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206억유로의 지출이 발생한 것에 기인
- 2020년부터 재정건전화 노력의 지속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하락은 새로운 위기 발생시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고 재정여력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임

[그림 2] 2007년 이후 채무 추이 및 전망



주: ■ =채무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수지의 적정 수준과 실제 재정수지의 차이 기여도 -①

■ =채무에 대한 저량, 유량 조정의 기여도 -②

①과 ②의 합은 전년대비 채무비율 변화분

자료: Agence France Trésor, Draft Budget law 2018

1)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18년에 7%에서 6%로 감소하고 2019년에 폐지됨

2.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안의 정책우선순위는 학교교육, 국방, 연구 및 고등교육이며, 저소득층의 구매력 강화, 실업 대응, 주거정책 개혁에 주력
 - 정책우선순위 분야 중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에 513억유로, 국방에 342억유로,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에 274억유로를 투입할 계획
 - (학교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 분야에 2018년 전년대비 약 13억유로 예산 증액하여,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 장애학생 지원 및 학교 교육시설 강화
 - (국방) 육군 인력 증원을 위한 국방 예산 86억유로 증액, 내무부 운영군 (operational force)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0,000명의 경찰 병력 추가 모집
 - (R&D 및 고등교육) 청년과 미래에 투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2018년 전년대비 약 7억유로 예산 증액, 사회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 석사과정 보조, 새로운 대학생 주택의 설립 등 학생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강화, 유럽 차원의 공동연구에 기여
 - (저소득층의 구매력 강화)
 - 2016년부터 시행된 직업 수당(Prime d'activité)²⁾을 2018-2020년 동안 매월 80유로 인상 지급하며 이를 위해 12억유로 재정 투입
 - 장애인 수당을 2018년 860유로, 2019년 900유로 증액(전체 재정비용: 20억유로)
 - (실업 대응)
 - 정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지원 고용계약을 크게 축소하고(2017년 320,000 계약, 2018년에는 200,000 계약), 청소년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에 배정된 예산을 증가시킬 것임
 - (주거정책 개혁)
 - 2018년에 17억유로에 달하는 주택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사회적 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의 구조개혁 실시

2)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생계 보조비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평균 수당액은 164유로

3. 예산안 내용(PLF 2018)

- 2018년 예산법안(PLF 2018: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8)은 2017년 9월 27일에 발표되어 12월 21일 예산법(LF 2018: Loi de finance 2018)으로 통과

가. 세입

- 2018년 재정수입은 2017년 수정전망 대비 36.3% 감소한 3,020억유로로 전망
- 2018년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0.3%(13억유로) 감소한 2,888억유로로 전망
 - 조세수입 중 경제성장에 의한 자연증가분은 102억유로(3.5%)이며, 주로 부가가치세(43억유로, +2.9%)와 소득세(29억유로, +3.9%) 증가에 기인
 - 2018년 예산안의 새로운 조세정책에 의한 세수감소분은 68억유로이며, 다음을 포함
 -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시행(-13억유로)
 - 부유세 폐지 및 부동산 재산세 신설(-32억유로)
 - 3년 동안 가구의 80%에 대한 주택세 삭감(-30억유로)
 - 디젤과 가솔린에 대한 세금 통합(9억유로)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12억유로)
 - 천연가스소비세 및 에너지제품소비세 인상(15억유로)
 - 에너지전환법에 의해 탄소 성분의 궤도³⁾ 가속화(11억유로)
 - 가계와 기업의 세금부담 감소 정책에 따라 2018년 약 103억유로, 2018-2022년 동안 212억유로 규모의 총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감소할 전망

3) 2014년에 에너지 제품의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국내소비세가 증가하는 탄소 성분의 궤도 프로그램 도입하였으며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탄소 1톤 배출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음

<표 5> 에너지제품소비세의 탄소 성분 목표(유로/tCO₂)

2018	2019	2020	2021	2022
44.6	55	65.4	75.8	86.2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2.9%, 소득세 25.2%, 법인세 8.8%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18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4%(2억유로) 증가한 132억유로로 전망

<표 6> FY2018 세입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6 결산	2017 본예산	2017 수정	2018 예산법안
I.재정수입	300.3	306.9	303.1	302.0
II.조세수입	284.1	292.3	290.1	288.8
소득세	71.8	73.4	72.6	72.7
법인세	30.0	29.1	28.4	25.3
부가가치세	144.4	149.3	150.5	152.8
에너지제품소비세	15.9	10.6	10.4	13.3
기타 세입	22.0	30.0	28.2	24.6
III.세외수입	16.2	14.5	13.0	13.2

자료: PLF 2018

<표 7> 2018년 주요 세제개편안

(단위: 십억유로)

주요내용	2018년 세수효과
가구의 80%에 대해 주택세 삭감	-3.0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 신설	-3.2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시행	-1.3
법인세율 33%→ 25% 인하	-1.2
급여세의 네 번째 과표구간 제거	-0.1
에너지세 인상	3.7
담배세 인상	0.5
2017년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CICE) 6%→ 7%로 인상	-4.0
임금에 대한 세액공제	-0.6
가구의 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1.0
총합계	-10.3

자료: PLF 2018

<표 8> 중장기 세제개편안

(단위: 십억유로)

주요내용	2018-2022년 세수효과
가계구매력 지원	-14.9
가구의 80%에 대해 주택세 삭감	-10.1
일반사회보장세(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사회보장기여금 교환(swap)	0.0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3.5
개인소득세 개별화(individualization)	-1.3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13.8
법인세율 33%→ 25% 인하	-11.1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CICE)/사회보장기여금 교환(swap)	-0.2
3% 배당세 폐지	-1.9
임금의 최고한계세율 제거	-0.1
초소형기업 우대조치	-0.4
투자	-6.5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	-3.2
신설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시행	-1.9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1.4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	14.0
친환경 과세 증대	12.5
기업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과세	0.1
담배세 인상	1.4
총합계	-21.2

자료: Agence France Trésor, Draft Budget law 2018

나. 세출

□ 2018년 재정지출은 3,863억유로로 2017년 수정전망 대비 38.9%정도 증가

-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이민 및 통합정책, 보건의료,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예비비 제외)
-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분야: 기후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천연자원의 보존과 영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1% 증가한 104억유로
- 이민 및 통합정책 분야: 불법 이민 대응, 망명신청자 전용 주택 증가, 프랑스

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국(OFPRA)과 이민 통합국(OFIG)에 대한 인력 증원, 망명시스템 최적화 등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한 14억유로

- 보건의료 분야: 간질 치료 의약품인 Dépakine에 의한 피해자 보상비용 7천7백7십만유로 책정, 윌리스 푸투나(Wallis and Futuna)⁴⁾ 보건당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한 14억유로
-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분야: 2024년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준비, 시민자원봉사 단체(Service Civique)와 지역 사회활동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21.9% 증가한 8억유로
- 일반공공행정 분야: 2018년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차세대 행정구역(Préfectures nouvelle génération) 계획 시행의 마지막 해에 해당, 내무부의 다영역 지출 조정·통합 등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21억유로

<표 9> 2018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31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⁵⁾	2017 본예산 (A)	2018 예산법안 (B)	B-A (%)
공공변화정책(Action et transformation publiques)	0.00	0.02	순증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6	2.86	0.00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49	2.14	-14.06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15	3.19	1.27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58	2.68	3.88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54	2.46	-3.15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8.26	16.53	-9.47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51	0.52	1.96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0.02	0.41	1950.00
문화(Culture)	2.70	2.73	1.11
국방(Défense)	32.44	34.20	5.43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37	1.38	0.73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9.44	10.39	10.06

4) 프랑스령의 해외 섬이며 남태평양에 위치

mobilité durables)			
경제(Économie)	1.64	1.63	-0.61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국채발행 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¹⁾	0.55	0.58	5.45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50.01	51.29	2.56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8.12	8.13	0.12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10	1.38	25.45
미래 투자(Investissement d'avenir)	0.00	1.08	순증
법무부(Justice)	6.85	6.98	1.90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57	0.56	-1.75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02	2.02	0.00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0.99	0.99	0.0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6.69	27.40	2.66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31	6.33	0.32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44	3.66	6.40
보건의료(Santé)	1.27	1.42	11.81
치안(Sécurités)	13.10	13.30	1.53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7.64	19.20	8.84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73	0.89	21.92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5.27	15.18	-0.59
미션별 합계	234.66	241.53	

주: 1)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부담금과 채무부담을 제외
자료: PLF 2018

5)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
 - 2018년부터 부유세(L'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가 폐지되고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로 대체
 - 부동산, 사치품, 주식 등 모든 자산 합계가 130만유로 이상인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부유세(ISF)는 저축 및 투자를 저해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IFl)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이익을 얻음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IFl)는 동일한 기준(130만유로 이상), 동일한 규모 및 동일한 규칙(주거지에 대해 30% 공제)을 기준으로 함
 -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도입
 - 현행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자소득 62%, 배당금 44%)는 복잡성, 높은 한계세율과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어져 프랑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
 - 2018년부터는 30% 단일세의 시행으로 자본소득(이자, 배당금) 및 양도가능 유가증권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가 간소화되고 완화될 것임
 - 대규모 투자 계획(Grand plan d'investissement, GPI) 시행
 - 대규모 투자 계획(GPI)은 570억유로 규모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추진되며 친환경적 전환(transition écologique)의 가속화, 사회 역량의 구축, 혁신에 대한 경쟁력 확보, 디지털 시대로의 발전의 4 가지 목표로 구성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교통 및 지역사회 시설, 고등교육, 연구, 혁신, 공공 훈련 및 기술 정책, 생태 및 에너지 전환, 보건, 농업, 공공 행정의 현대화에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 대규모 투자 계획(GPI)에는 100억유로의 세 번째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troisième 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 200억유로의 탄소배출저감 프로그램이 포함
- 대규모 투자 계획(GPI)의 재원 조달을 위해 별도 예산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며 부처별 프로그램,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사회보장 예산에 직접 배치 될 것임

□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세정책을 마련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임금 세액공제(crédit d'impôt de taxe sur les salaires, CITS)는 기업의 수익 및 고용 회복에 기여했지만 임금 지불과 세액공제 적용의 1년 시차는 그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임금 세액공제(CITS)를 2019년에 폐지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기부금 축소로 대체할 계획
- 이 개혁은 즉각적인 세금감면(사회보장기부금은 세금의 일부)과 저임금에 대한 더 나은 타겟팅으로 이어질 것이며 고용에 더 효과적일 것임
- 관련 산업부문은 이러한 개혁으로 14억유로의 순익을 얻을 수 있음
- 유럽연합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3% 배당세⁶⁾ 폐지
- 2018년부터 약 20억유로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이 조치는 투자자에게 프랑스 기업의 매력도를 높일 것임
- 2022년까지 법인세를 28%에서 25%로 단계적 인하
- 법인세 인하로 2022년까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110억유로 감소

6) 프랑스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3%로 과세(2017년 하반기 재정동향 참고)

<표 10> 법인세 인하 계획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 이전 계획	연간 매출액 500,000유로 이하 모든 기업28%, 그 외 기업33.33%	연간 매출액 10억유로 이하 기업 28%, 그 외 기업 33.33%	모든 기업 28%		
2. 새로운 계획	연간 매출액 500,000유로 이하 모든 기업28%, 그 외 기업 33.33%	연간 매출액 500,000유로 이하 모든 기업28%, 그 외 기업 31%	28%	26.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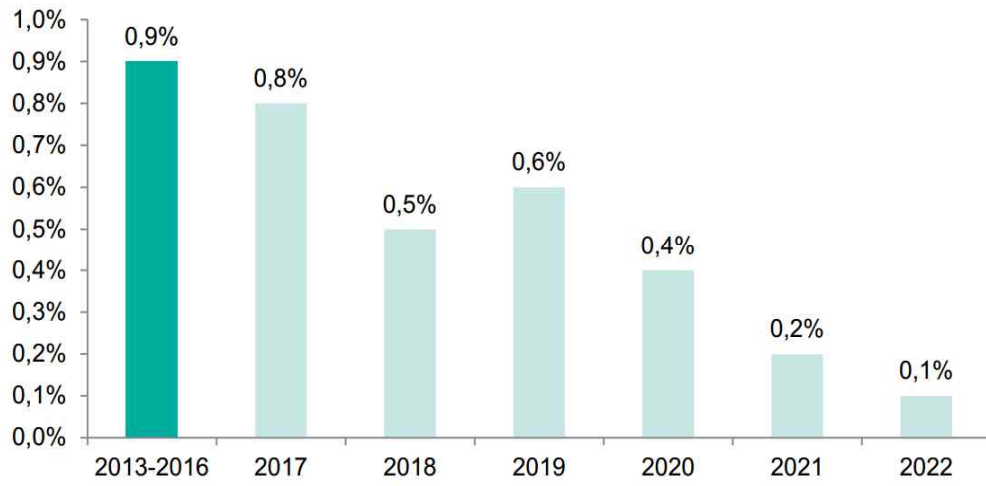
자료: Dossier de presse- PLF 2018

나. 재정건전화

□ 재정건전화를 위해 야심찬 지출 절감 조치가 2018년에 시행될 것임

- 2018년 17억유로 규모의 주택 보조금 삭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의 노인 연대수당(l'allocation de solidarité)의 재평가, 사회보장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0.5%로 제한
- 향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130억유로의 운영비용 절감
- 2018년 재정지출은 명목기준 1.5%, 실질기준 0.5% 증가하여 장기 추세를 훨씬 하회할 것이며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전년대비 0.7%p 감소할 것임
- 국가의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은 2016-2017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17년에는 3.3% 증가) 2018년부터 감속을 시작하여 2018년 0.6%, 2019년 -0.4%, 2020-2022년 -1%로 지출증가 목표를 설정
- 총 정부지출 목표(ODETE)는 2017-2022년 연평균 0.6% 증가하는 것으로 제한

[그림 3] 실질지출증가율의 추이 및 전망



출처: Dossier de presse- PLF 2018

<참고 1> 정부지출 기준

-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은 국가의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 및 총 정부지출 목표(Objectif de Dépenses Totales de l'État, ODETE)에 초점을 맞춘 정부지출 기준의 이중 시스템을 기반으로 함
- 국가의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 기준은 중앙정부와 그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에 할당된 세출예산을 의미: 일반 예산의 세출, 할당된 자원 및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 총 정부지출 목표(ODETE)는 부채 부담, 연금,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유럽연합(EU)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지출을 포함

<표 11> 정부지출 기준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7	2017 (2018년 포맷)	2018	2019	2020
부처별 지출	234.6	236.0	240.5	241.8	246.9
목적제로 충당된 지출한도	9.6	9.3	9.0	8.9	9.0
조정가능 특별회계 및 부속예산	13.3	13.3	13.3	13.8	14.1
중앙정부 예산 재조정	-5.8	-5.8	-5.8	-5.9	-5.9
2022년 공공 액션 추가 비용절감					-4.5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 기준(1)	251.7	252.8	256.9	258.6	259.7
실질증가율			0.6%	-0.4%	-1.0%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2)	47.0	47.1	47.0	47.1	47.5
특별할당회계의 연금지출	55.7	55.7	56.5	57.8	59.0
특별할당회계의 기타지출	1.5	1.5	1.8	2.0	1.0
부채 부담	41.5	41.5	41.2	41.9	44.7
유럽연합(EU)의 부담금	18.7	18.7	20.2	23.3	24.1
미래를 위한 투자 (Investissements d'avenir)	0.0	0.0	1.1	1.1	1.9
기타지출(3)	117.5	117.5	120.8	126.1	130.7
총 정부지출 목표(ODETE)(1+2+3)	416.2	417.4	424.7	431.8	437.8
실질증가율			0.7%	0.6%	0.0%

출처: PLF 2018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8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에서 2018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지출통제 노력으로 전년대비 30억유로 이상 감소한 22억유로로 전망

- 2018년 사회보장예산의 하위 부문 중 의료보험(-41억유로→ -8억유로)과 가족지원금(3억유로→ 13억유로) 부문의 수지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산재보험(10억유로→ 5억유로)과 법정연금기금(13억유로→ 2억유로) 부문은 전년대비 흑자 폭이 감소할 전망

<표 12> 사회보장부문 예산 수지 전망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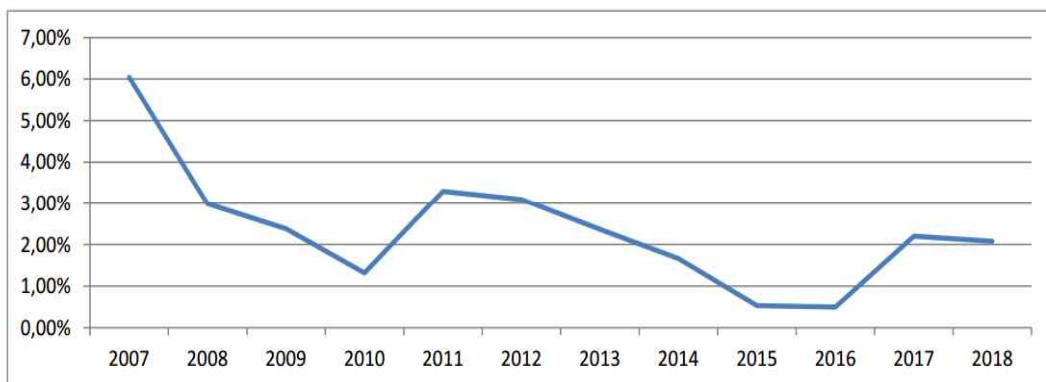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보험(Maladie)	-4.1	-0.8	1.0	3.8	6.6
산재보험(AT-MP)	1.0	0.5	0.8	1.3	1.7
법정연금기금(Vieillesse)	1.3	0.2	-0.8	-2.0	-3.0
가족지원금(Famille)	0.3	1.3	2.4	3.6	5.0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수지	-1.6	1.2	3.5	6.6	10.3
노령연대기금(FSV)	-3.6	-3.4	-2.7	-1.5	-0.8
총재정수지(RG+FSV)	-5.2	-2.2	0.8	5.2	9.5

출처: PLFSS 2018

- 2018년에는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이 2007-2017년의 연평균 증가율(2.4%)을 하회하는 2.1%를 나타내어 2017년 급증한 사회보장지출이 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대비 52억유로 이상의 지출 절감 노력에 기인

[그림 4]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출처: PLFSS 2018

- 중기적으로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2017년 52억유로, 2018년 22억유로로 감소하며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19년 8억유로, 2020년 52억유로, 2021년 95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중기적인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의 개선세 전망은 거시경제적 여건의 개선(2019-2021년 GDP성장률 1.7% 증가)으로 인한 임금 상승(2019년 +3.2%, 2020년 +3.6%, 2021년 +3.8%),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가정을 기반으로 함

<표 13> 2018년의 의료보험지출 절감 계획

(단위: 백만유로)

주요내용	지출 절감액
건강관리 제공 체계 구축	1,465
효율적인 치료 방법의 구축	250
건강 및 의료사회 기관의 내부 성과 향상	1,215
구매 및 기타 비용 최적화	575
추가 목록 및 임시 사용 승인	390
전반적인 지출 목표에 대한 ONDAM의 기여도 재조정	200
의료사회 기관의 내부 성과 향상	50
의약품의 관련성 및 효율성 제고	1,490
의약품의 가격 인하	480
제네릭(génériques) 약품의 개발·판매촉진	340
바이오시밀러 약물	40
의료기기의 가격 인하	100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처방구조 및 처방관리	320
환급	210
의료행위의 관련성 및 질 제고	335
건강관리 통제	110
도시와 병원의 생물학, 영상 및 기타 의료 절차의 관련성 및 관세 적용 조치	225
수송차량 및 작업 파업 요구사항의 관련성 및 효율성 제고	240
수송차량	75
일일 수당	165
포탈 대응 및 통제	90
기타 조치	545
병원 일일 요금 업데이트	200
의료협약 재정지원에 있어 보완적 기구의 참여	100
건강보험 패키지의 관련성 및 역학 관리	180
보건 전문가 지출금 조정	65
총합계	4,165

출처: PLFSS 2018

- 2018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는 2.3%(2,000억유로)이며, 2018년 의료행위의 질과 의약품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41억 6,500만유로의 의료관련 지출을 절감할 계획
- 2017년 여름에 시작된 노동법 개혁과 실업수당 개혁은 실업률을 줄이고 프랑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노동법 개혁은 해고와 채용의 용이 등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화를 골자로 함
 - 실업수당 개혁은 폐업한 자영업자와 자발적 사직자, 농민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실업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함